

# 지역농업 개발을 위한 특화산업 육성에 관한 연구

## -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

서기원 · 김홍진

(순천향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A Study on Promoting the Specialized Regional Industries for the Agricultural Developments

#### - The Case of Chungnam Province -

Ki-Won Suh · Hong-Jin Kim

Dept. of Economics, College of Social Sciences, Soonchunhyang University,  
Asan, Chungnam 336-745, Korea

#### 적 요

지역특화산업은 생산요소의 공급체계가 산지로서의 지역성에 기초하면서 생산된 부가가치와 자본 등이 역내에서 순환·축적되는 산업으로서, 내발적 지역발전의 중요요인이 될 수 있는 산업이다. 따라서 지역특화산업은 고유의 경쟁력을 보유하면서 지역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산업이다. 충청남도는 농업을 위한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최근 산업화에 따라 농업의 비중이 상당히 감소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농업이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나 농외소득의 비중은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편으로 지역특화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충남의 대표적 지역특화산업은 금산 인삼, 청양 구기자, 민속주, 한산 모시 등으로 이들을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육성하면 농가소득 증대 및 충남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침 대신 지방정부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며,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지원규모 및 지원방식도 합리화될 필요가 있다. 제품의 품질 및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 및 대학의 지원과 산학협동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으며, 지역특화산업 영위 단지에 대한 금융지원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시판매장 및 유통에 있어서도 차별화된 전문판매망의 확보가 요망되고 있다.

####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적으로 도전받고 있는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지역특화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충남은 농업을 위한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아직도 농업

의 비중이 타도에 비하여 높은 편이므로, 특화산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의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충남 농업 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과제라 생각된다.

대외적으로 볼 때 WTO체제의 출범에 따라 국내 농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해외의 값싼 농산물이 수입되면서 충남 농업은 경쟁력이 낮은 작목의 생산감소

와 농업소득의 정체가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불어닥친 금융·외환위기와 이에 따른 IMF 관리체제는 특히 지역특화산업과 관계가 깊은 원예 특작농가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우량품종의 개발, 가공, 저장, 수송기술 등의 발달로 농업생산구조와 유통체계가 변화되고 상업농 및 기업농의 역할이 커지면서 국제경쟁력이 있는 작목을 중심으로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한 수출농업이 활성화 될 가능성도 있다.

대내적으로는 농산물의 상품화율이 높아짐에 따라 전업적 상업농이 발달하고 비교우위가 있는 작목을 중심으로 지역특화 생산이 뚜렷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가족제도와 주거형태의 변화로 일시에 다량 구매보다는 소량 다종의 농산물 구매형태로 전환되고 있으며, 소비자의식의 향상으로 영양가 높고 질이 우수한 농산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마당에 농업은 더이상 취약산업으로서 사회적 보호만 요청할 수는 없으며, 자력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충남 지역은 금산 인삼, 청양 구기자, 민속주, 한산 모시 등 품목별로 노력여하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본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하여 충남의 농업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지역특화산업은 노동력, 자본, 기술, 원자재 등 생산요소의 공급체계가 산지로서의 지역성에 기초하면서 생산된 부가가치와 자본 등이 역내에서 순환·축적되는 산업으로서, 내발적 지역발전의 중심요인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이다. 즉 외부로부터의 투자와 자극에 의하여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내의 주민들의 결정과 지역내에 축적된 생산요소들에 의한 내발적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지역특화산업은 그 중요성 및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내용으로 먼저 II장에서 지역특화산업의 개념, 특징 및 분류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III장에서는 충남 농업의 현황을 전국 현황과 대비하여 분석하며, 아울러 충남 지역특화산업의 현주소를 면밀히 검토하기로 한다. IV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특화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 제시하기로 하며 V장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맺고자 한다.

## II. 지역특화산업의 개념 및 특징

### 1. 지역특화산업의 개념과 의의

#### 가. 지역특화산업의 개념

지역특화산업의 개념은 현재 일률적으로 정해지기도 하는 학자들에 따라 어떤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각 학자들에 따른 지역특화산업의 개념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지역특화산업이란 일정 지역에 집중 입지하는 중소기업군 중에서 자본, 노동력, 기술, 원재료 등이 지역내의 부존·조달·축적에 존립의 기초를 둔 산업으로 정의되고 있다(靑野壽彥(1983) 참조). 그러나 원재료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도 자본·노동력·기술 등의 지역내에서의 집적이 그 산업의 기초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도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또한 山崎充(1985)에 따르면 지역특화산업이란 특정의 지역에서 생성된, 시기가 오래되고 전통있는 산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특정의 지역에 동일 업종의 중소기업이 지역적 기업집단을 형성해서 집중 입지하고 있는 산업을 말한다. 이 산업은 생산·판매 구조가 소위 사회적 분업체제를 특징으로 하며 그 지역에 독자적인 특산품을 생산하고 전국과 해외를 대상으로 제품 판매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 외에도 淸成忠男(1980)은 지역특화산업이란 사회적 분업에 바탕을 둔 지역적인 기업집단인 산지(產地)를 형성하여 전국시장 내지 해외시장을 상대로 생산활동을 하는 소비재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산업은 주로 지역의 자원과 노동력을 사용하여 지역적 독립성을 가진 특산품을 생산하는데, 산업 및 공급면에서는 지역성을 가지고 시장면에서는 탈지역화되어있는 소비재산업을 말한다.

이상의 개념 정의는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각각의 공통점을 토대로 지역특화산업의 개념을 정리하면 (표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표 1. 지역특화산업의 정의

생산	수요	제품	기업형태	기타
지역화 (특산품) (집산지 형성)	탈지역화 (전국 & 해외)	소비재	중소기업 (영세기업)	역사적 전통성

#### 나. 지역특화산업의 의의

앞의 개념 정의에서 본 바와 같이 지역특화산업은 노동력, 자본, 기술, 원자재 등 생산요소의 공급체계가 산지로서의 지역성에 기초하면서 생산된 부가가치와 자본 등이 역내에서 순환·축적되는 산업으로서, 내발적 지역발전의 중심요인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이다. 즉 외부로부터의 투자와 자극에 의하여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내의 주민들의 결정과 지역내에 축적된 생산요소들에 의한 내발적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지역특화산업은 그 중요성 및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첫째, 지역특화산업은 타국가의 기업제품에 대하여 고유의 경쟁력을 보유한다. 이 산업은 생산요소가 해당 지역에서 독특하게 공급되고 우리 체질에 맞는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기업제품에 대해 지역특화산업 고유의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WTO 보조금 분류상 허용보조금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조세·금융 지원중 WTO 보조금 분류상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되는 농어촌경제활성화 지원관련 보조금 및 기술개발 관련 보조금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문이 바로 지역특화산업이다<sup>1)</sup>.

셋째, 지역특화산업은 산업구조 조정에 기여할 수 있다. 즉 농어민들의 지역특화산업에의 직간접 참여를 통해 탈농이나 전업을 유도함으로써 농가의 생산규모 확대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산업의 구조조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지역특화산업은 그 지역 특유의 공예품이나 특산품을 만들어냄으로써 그 지역 고유의 생활문화를 유지하고 전통문화를 후손들에게 계승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문화 형성에도 기여하게 된다<sup>2)</sup>.

다섯째, 지역의 매력을 증대시켜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할 수 있다. 지역의 독자적인 문화를 나타내는 지역특화산업은 그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관광자원이 되는 것이어서, 개성있는 지역특화산업이 발전될수록 그 지역은 관광명소가 될 수 있다.

그 외에도 지역특화산업은 우리나라의 취약한 농업여건을 감안할 때 농외소득 증대원으로 적합하며, 계약재배를 통한 농산물 수급조절과 가격 안정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등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 2. 지역특화산업의 특징과 분류

### 가. 지역특화산업의 특징

우리나라 지역특화산업의 특징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sup>3)</sup>.

1) 겸업성: 개인이 단독 출자하여 전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1인출자를 하더라도 주위 농가와 함께 공동 생산하거나 공동출자·공동생산하는 농가 부업형태로 영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기능성: 지역특화산업은 대대로 가내수공업으로 전해져 내려오면서 기술을 축적해 온 경우가 많고 타인에게 기술이전하기를 꺼리는데 이것이 대량 생산을 어렵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3) 역사성: 지역의 역사적 사실과 지역특화산업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해 왔다. 청양 구기자, 한산 소곡주 등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낙후지역성: 지역특화산업은 자원의 이용면에서 볼 때 대나무, 닥나무, 완초 등 일차산업이 발달된 지역 및 인구 과소지역과 공업화의 추진이 더딘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5) 계절성: 대부분 겸업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농사 및 수산업무로 바쁜 시기에는 작업에 전념할 여유가 없고 한가한 시간에 작업을 하기 때

문에 조업에 계절성이 강하다.

6) 영세성: 지역특화산업은 생산·제작 과정에서 매우 전통적인 방법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생산량이 매우 소량이고 제품이 생산된 후에는 보통 현대적 유통구조를 통하지 않고 판매되고 있다.

7) 노동집약적: 단순노동의 반복에 의한 노동집약적인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은데 생산성이 아주 낮고 기계를 이용한 유사상품의 대량생산으로 인해 지역특화산업 특유의 차별성이 요구된다.

나. 지역특화산업의 분류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일본학자들의 분류를 보면 (표 2)와 같다.

그러나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개념이 국내 학자들 사이에서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우리나라 지역특화산업의 포괄범위 및 분류방법도 상이한 것이 현실이다. 즉 지역특화산업을 지역 특산품이나 전통공예품 산업으로 국한시킬 경우 이들의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미미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지역특화산업을 광의로 해석하여 1차산업인 지역특산물, 2차가공산업인 민속공예품산업 및 전통가공식품산업, 그리고 섬유직물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농업과 관

련되는 측면에서 지역특화산업을 정의하고 있으므로 2차가공산업인 민속공예품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충남지역에서는 지역특산물중 인삼과 구기자, 전통가공식품산업중 민속주 산업, 섬유직물 산업중 한산모시가 대표적 지역특화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III. 충남의 농업 및 지역특화산업 현황

1. 충남의 농업 현황

충청남도는 농지의 2/3가 평야지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1/3은 준산간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농업을 위한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최근 경제성장과 산업화에 따라 농업의 비중이 상당히 감소하였거나 감소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농업이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 높은 편이다.

먼저 전국대비 충남 농업의 위치를 보면 (표 3)과 같다. 농가수에 있어서 충남은 전국대비 약 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1990-95) 농가수 감소율 면에서는 전국보다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다. 농가인구 및 농경지는 전국대비 13%를 약간 상회하고 있으며, 도별로 보면 충남은 경북, 전남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농가인구의 감소율이

표 2. 지역특화산업의 분류

기 준	분 류 내 용		
입 지	대도시형	지방도시형	농촌형
역사적 형성 방법	전통적 재래형	재래화된 외래형	신흥형 지역특화산업
기술적 형태	수공업		비수공업
	공예산업	비공예산업	

표 3. 전국대비 충남 농업의 위상

연도	농가(천호)			농가인구(천명)			농경지(천ha)		
	전국	충남	구성비(%)	전국	충남	구성비(%)	전국	충남	구성비(%)
1990	1,767	225	12.8	6,661	901	13.5	2,127	280	13.2
1995	1,499	193	12.9	4,838	641	13.3	2,033	272	13.4
증감율(%)	-15.2	-14.7	-	-27.4	-28.9	-	-4.4	-2.5	-

자료: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물통계연보, 각년호

약 30%에 달하고 있어 같은 기간동안 농업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농업 발전의 중요 애로요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충남의 농업이 도내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을 보면 (표 4)와 같다. 농가수는 지난 6년간 (1990-96) 17.8%가 감소하였으나 전체 가구수에서 여전히 32.2%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취업인구 측면에서도 40.9%라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내 총생산의 비중도 계속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18.9%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전국평균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와 같이 충남의 농업은 지역경제 측면에서 아직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충남의 농업이 아직까지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농업은 타산업과 달리 자연환경에 크게 좌우되어 생산성의 급격한 증가가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여가의 소득과 생활환경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는 등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농업 자체의 소득증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농업의 소득증대정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특화산업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농가소득의 농외소득의존도는 (표 5)에

표 4. 충남 농업의 道內 비중

연도	가구(천호)			취업인구(천명)			지역내총생산(십억원) <sup>2)</sup>		
	충남	농업	구성비(%)	충남	농업 <sup>1)</sup>	구성비(%)	충남	농업 <sup>1)</sup>	구성비(%)
1990	478	225	47.1	834	410	49.2	6,171	1,778	28.8
1995	575	185	32.2	898	367	40.9	14,459	2,731	18.9
증감율(%)	20.3	-17.8	-	7.7	-10.5	-	134.3	53.6	-

자료: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각년호

통계청, 지역통계연보, 각년호

주: 1)농림어업을 나타냄 2)경상가격 표시이며 1995년도 수치임

표 5. 국가별 농외소득 의존도

(단위: 천원, 천엔, 천\$NT)

		1970	1980	1990	1995 <sup>1)</sup>
한국	농가소득(A)	256	2,693	11,026	20,461
	농업소득	194	1,755	6,264	9,127
	농외소득(B)	62	938	4,762	11,334
	(B/A)	24.2	34.8	43.2	55.4
일본	농가소득(A)	1,393	4,515	6,602	7,094
	농업소득	508	952	1,163	1,594
	농외소득(B)	885	3,563	5,439	5,500
	(B/A)	63.4	78.9	82.4	77.5
대만	농가소득(A)	35	198	389	-
	농업소득	17	59	137	-
	농외소득(B)	18	139	252	-
	(B/A)	51.3	70.4	64.8	-

자료: 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연보, 각년도

주: 1)일본은 1994년도 수치임

서 보는 바와 같이 1970년의 24.2%에서 1995년에는 55.4%로 상당히 높아졌으나 일본의 77.5%, 대만의 64.8%(1990년 현재)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일본은 1990년에 농외소득의존도가 80%를 넘어선 적이 있으며 대만 또한 1980년에 이미 농외소득의존도 70%를 돌파하였다. 이러한 국가들의 추세를 보더라도 앞으로 우리나라 농가의 농외소득 제고와 농외소득원 개발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1996년도의 농외소득의존도를 지역별로 보면 (표 6)과 같다. 그 중에서 경기도가 68.6%로서 농외소득의존도가 가장 높고 다음은 경상남도가 60.4%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반해 충남지역은 45.4%로서 전국 평균에 크게 못미치고 있으며 제주지역 다음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충남지역은 지역 특화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농외소득을 한층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제 WTO 출범에 따라 앞으로 농산물 가격지지

를 위한 농업보조금과 농산물 수입제한은 연차적으로 철폐해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호무역과 가격보조라는 농정의 중심수단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7)은 이러한 농업보조금 감축계획을 보여주고 있는데, 10년간 2,286억원의 국내 농업보조금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과거와 같은 보호무역과 가격보조와 같은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나라 농어촌 시장을 국내외적으로 유지하고 확장시키는 적극적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WTO는 무역왜곡 효과의 정도에 따라 보조금을 금지보조금, 상계가능보조금, 허용보조금으로 나누고 있다. 금지보조금은 직접적 무역왜곡효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수출보조금이 여기에 해당되어 그 사용이 금지된다. 상계가능보조금은 간접적이지만 상당한 무역왜곡효과를 초래하는 보조금으로서 이에 대한 상계조치를 허용하고 있다. 허용보조금은 경미한 무역왜곡 효과만을 유발하는 보조금

표 6. 지역별 농외소득 의존도(1996, 호당 평균)

(단위: 천원, %)

지 역	농 가 소 득 <sup>1)</sup>	농외소득	구성비
경 기 도	28,788	19,766	68.6
강 원 도	20,162	11,152	55.3
충 청 북 도	22,359	11,955	53.5
충 청 남 도	26,506	12,044	45.4
전 라 북 도	22,660	11,945	52.7
전 라 남 도	19,478	10,453	53.7
경 상 북 도	22,591	10,413	46.1
경 상 남 도	22,457	13,568	60.4
제 주 도	29,903	11,541	38.6
평 균	23,297	12,461	53.5

자료: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물통계연보, 1997

표 7. 국내 농업보조금 감축계획

(단위: 억원)

감축기준	감축목표	연간감축액 (10년)	최종연도 상한선	비 고
17,186	13.3%	228.6 (2,286)	14,900	쌀은 1993년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별로 감축하되 최종연도 상한선에 일치

자료: 농림수산부, WTO대응 농림어업부문 기본대책, 1994. 11.

으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상계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연구개발지원금, 지역개발지원금, 환경보조금 등이 대표적인 허용보조금의 범주에 포함된다<sup>4)</sup>.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농어촌경제 활성화 지원관련 보조금 및 기술개발관련 보조금 등은 WTO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되는 바, 이러한 보조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문이 바로 지역특화산업이므로 지역특화산업 육성은 향후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겠다.

## 2. 지역특화산업 현황

농업을 위한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아직도 농업의 비중이 타도에 비하여 높은 충남의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특화산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의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더욱이 특화산업 육성에 대한 연구는 WTO 시대에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문제에도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이제 농업은 더이상 취약산업으로서 사회적 보호만 요청할 수는 없으며, 자력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충남 지역은 품목별로 노력여하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본다. 특화산업 육성을 통하여 충남의 농업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충남의 대표적 지역특산물로서 금산 인삼과 청양의 구기자, 전통가공식품 산업으로서 민속주, 섬유직물산업으로서 한산 모시를

중심으로 지역특화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 가. 인삼

우리나라에서 인삼은 약 1,500년전부터 재배되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문헌에 인삼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중엽인 이조 선조때부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갈피나무과에 속하는 인삼은 학명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옛부터 신비의 영약으로 알려져 각종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사용되어 왔으며, 지금도 인삼연초연구소를 비롯한 여러기관 및 단체에서 그 효능을 연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연구된 바로는 인삼 사포닌이 인삼의 약효를 대표하는 주성분으로 되어 있으나 아직도 인삼의 신비가 완전히 밝혀졌다고는 볼 수 없다. 인삼의 약효로는 위장쇠약에 따르는 신진대사기능의 감퇴를 진흥시킴과 식욕부진, 소화불량, 구토, 신경쇠약, 복통, 일반쇠약자의 발육촉진 등에 사용되고 일부에서는 강장제로 복용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체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리 많이 복용하여도 이렇다할 부작용이 없는 것이 인삼의 특징이다<sup>5)</sup>.

우리나라는 인삼의 종주국으로서 충남 금산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인삼을 생산하고 있으며 전국의 약 6만3천호의 농가에서 인삼을 경작하고 있다. 그러나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의 대부분이 다른 작물도 경작하는 겸업농이 대부분이며 경작규모도 작은 실정이다. 이와 같이 대부분이 겸업농이며 경작규모가 작은 이유는 인삼을 경작하면 수확기까지 4-6년의 긴 기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윤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영세한 농가에서는 인삼재배에만 전념할 수 없는

표 8. 인삼 생산 지원규모(1996)

	사업량(ha)	사업비(백만원)				
		계	국고보조	지방보조	용자	자담
전국(A)	2,420	175,992 (100.0)	600 (0.3)	532 (0.3)	20,300 (11.5)	154,560 (87.8)
충남(B)	577	41,967 (100.0)	141 (0.3)	127 (0.3)	4,841 (11.5)	36,858 (87.8)
B/A(%)	23.8	23.8				

형편이다. 따라서 인삼이 고소득 작목임에도 불구하고 전업농이나 경영규모가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인삼 생산의 구조 조정을 위하여, 경영규모의 확대에 의한 생산비 절감, 생력적 기계의 확대 및 보급에 의한 비용 절감, 집단재배지 조성, 직파의 확대, 등재배방식의 전환, 식재자금 지원규모 및 방법의 개선, 경영주체의 유형별 육성, 그리고 양질 인삼의 생산 확대 등이 요망된다. 또한 생산자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산지도체계를 확립하고 지도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인삼협동조합의 신용사업을 확충하고 생산자단체가 유통 및 가공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sup>6)</sup>.

우리나라의 인삼 생산 지원규모와 지원대상 및 기준은 (표 8) 및 (표 9)와 같다. 1996년 기준 인삼재배면적은 전국에서 2,420ha이며 그 중에서 충남은 577ha로서 전체의 23.8%를 차지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1,760억원으로서 충남에는 약 420억원이 투자되고 있으며, 총사업비의 약 88%에 해당되는 1,545억원이 농가 스스로에 의해 조달되고 있다.

나. 구기자

한방에서 말하는 이른바 음허증(맥이 약해서 잠만 자고 있는 듯한 병상)에 쓰이는 인삼과는 달리 구기는 체질을 따질 필요없이 사용해도 된다. 「신농품본초경」<sup>7)</sup>에는 구기를 오랫동안 복용하면 근골을 단단하게 하여 몸이 가벼워져 늙지 않고 더위와 추위를 타지 않는다고 소개되어 있다. 중국 당나라의 유유석이 쓴 「구기정시」에는 건강 장수의 효능이 있어 한잔을 마시면 그만큼 나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읊어지고 있을 정도이다. 구기는 가지과에 속하는 낙엽 활엽 관목인데 줄기는 가늘고 회백색이며 대개 가지가 있다. 여름에 자색꽃이 피고 열매는 가을에 붉게 익는다.

한국, 중국, 일본에 분포하여 과실은 구기자라하여 약용하고 고추잎 같이 생긴 어린잎은 식용하며, 관상용으로 심기도 한다. 열매인 구기자는 강장제, 해열제로도 쓰이며 구기자 뿌리 껍질은 지골피라 하여 한방에서 소갈, 도한 등의 해열제로 이용된다. 구기는 촌락이나 길가에서 나는데 다른 한약체와는 달리 오용해도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sup>8)</sup>.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기자는 전국적으로 총 557ha에서 연간 857M/T이 생산되고 있는데 충남

표 9. 지원대상 및 기준

종 류	지원대상	재원별 지원비율 및 상환조건
식재자금	생산자단체 또는 농가	용자 10%, 자담 90% 연리 5%, 3-5년 거치 일시상환
우량묘삼생산		국고 25%, 용자 25%, 자담 50% 연리 5%, 2년 거치 일시상환
재배시설현대화		국고 10%, 용자 60%, 지방보조 10%, 자담 20% 연리 5%, 3-5년 거치 일시상환

표 10. 구기자 생산현황(1995)

지 역	농 가 호 수	전 체 면 적(ha)	생 산 량(M/T)
충 청 남 도	2,742(63.8)	288(51.7)	492(57.4)
전 라 남 도	1,435(33.3)	252(45.2)	329(38.4)
기 타	124(2.9)	17(3.1)	36(4.2)
합 계	4,301(100)	557(100)	857(100)

주: 괄호안은 구성비(%)

이 전체 생산면적의 51.7%, 생산량의 57.4%를 차지하고 있다. 농가호수에 있어서도 전국 4,300여가구중 충남이 63.8%에 달하는 2,742호를 점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기자 생산에 있어서는 충남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구기자는 충남의 대표적 지역특산물의 하나로서 손색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다. 민속주

농림수산부의 「전통식품개발사업」에 의하여 선정된 품목을 기준으로 본 지역별 전통가공식품산업 현황은 (표 11)와 같다. 여기에서 보면 1995년 현재 11개도 514개 품목에 362호의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총 24,012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 중에서 충남지역의 경우 72개 품목에 47호의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지원 규모는 3,532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통가공식품산업에 대한 농림수산부의 지원제도를 보면,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농어촌지역에서 농림수산부 지정 전통식품 가공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마을공동<sup>9)</sup> 및 생산자단체를 그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원규모는 기준사업비 이내인 경우는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받게 되고, 기준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사업비 지원한도액과 신청사업비의 20%인 자부담을 차감한 금액중 담보 가능한 융자금지원이 가능하며, 그 상세한 내역은 (표 12)과 같다.

충남지역의 대표적 전통가공식품산업으로는 민속주산업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찍부터 멥쌀을 발효시킨 술이 발전하였다고 하나 구체적으로 원료나 제조공정이 남아 있는 것은 고려시대부터이다. 당시 술의 종류에는 청주, 법주 및 탁주가 있었는데 고려말에는 몽골군이 가져온 소주가 널리 음용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본격적인 술산업의 중흥은 조선시대부터인데 당시의 고식품서에 등장하는 술의 종류만도 60-70종이나 된다.

이와 같이 번창하였던 술산업은 일제시대와 해방 후 경제발전과정에서 술의 원료인 양곡소비를 줄이기 위해 엄격한 주세법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쇠퇴하게 되었다. 결국 우리나라 전통민속주는 문헌 등에서 겨우 이름만 유지해 오다가 1983년 문화재관리국에서 실시한 전국 민속주조사를 통해 어렵פות이 그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면 (표 13)과 같다.

우선 문화재적 가치나 보존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1986년 11월 1일 서울의 문배주와 면천 두견주, 그리고 경주 교동 법주의 3종류를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제86호 향토술 담그기)로 지정하였다. 다음으로 국가지정 문화재에서 제외되었으나 보존의 가치가 높다고 인정된 16종에 대해서는 지방 무형문화재로 전국 시도에서 전통주로 지정하였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한 여타의 주류 제조업자들은 88올림픽에 대비한 관광산업의 육성이란 차

표 11. 전통가공식품 현황

구 분	품목수(개)	참여농가수(호)	정부지원(백만원)
전 국(A)	514	362	24,012
충 남(B)	72	47	3,532
B/A(%)	14.0	13.0	14.7

자료: 농림수산부, 정부지원 농수산물 가공업체 현황, 1995

표 12. 전통가공식품산업 지원제도

기준사업비	지원기준			융자조건
	보조	융자	자담	
280백만원	40%	40%	20%	연리 5% 3년거치 7년상환

표 13. 민속주 지정 현황

구 분		주종수	조사 및 지정기관	비 고
무형문화재 지정	국가지정	3	문화재 관리국	문배주, 두견주, 법주
	지방지정	16	전국 시도	4개업체는 제조판매중 3개업체는 제조면허승인
관광토속주 지정		18	교통부	8개업체는 제조판매중

자료: 문화재관리국, 전국민속주조사, 1983

원에서 관광토속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민속주나 관광토속주로 지정받은 술중 일부는 국세청의 주류 제조면허를 획득하여 상업적으로 제조, 판매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능보유자들이 할머니들이고 전문적으로 양조업을 할만한 자본력이나 경영능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 이들이 생산한 술이 주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충남지역의 민속주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산 소곡주

한산 소곡주는 부여 백제왕실에서 즐겨 마시던 우리나라 전통술 중에 가장 오래된 술이다. 「삼국사기」, 「백제본기」를 보면 다도왕 11년(서기 318년)에 추곡이 흉작이 되자 민가에서 제조하는 사영주를 금지하였고, 무왕 37년(서기 635년) 3월에는 조정신하들과 백마강 고란사에서 소곡주를 마시고 그 흥이 극치에 달하였다고 적고 있다. 또 의자왕 16년(서기 656년) 3월에는 왕이 음주 탐락하였다고 하고 조선시대에 가장 많이 알려진 술로써 기록되어 있다.

이 술은 저온에서 100일간 발효 숙성시켜 제조한 순수한 곡주로서 독특한 감칠맛과 깊고 그윽한 향이 으뜸이다. 인공첨가물을 일체 사용하지 않으며 쌀가루로 흰무리를 만들어 누룩물과 잘 혼합하여 3-4일간 발효시켜 밀술을 만들고 찹쌀을 증미하여 냉각시킨 다음, 밀술과 잘 혼합하여 땅속에 묻어 저온에서 100일간 자연발효시켜 용수를 박아 채취한다. 첨가물은 엿기름, 메주콩, 들국화를 넣고 고추는 잡귀가 범치 못하게 하기 위하여 쬐는다.

2) 계룡 백일주

조선조 인조반정때 일등공신인 이귀(이충정공)라

는 사람이 인조대왕으로부터 술제조비법을 하사받아 부인인 인동 장씨가 빚어서 궁으로 진상하면서 계룡 백일주의 제조가 시작되었다.

일명 신선주라고도 하는 계룡 백일주는 색·향·미가 독특한 고급 약주로 인공첨가물은 일체 사용하지 않으며, 순 우리 농산물인 찹쌀, 누룩, 재래종 국화꽃, 오미자, 홍화, 진달래꽃, 술잎을 재료로 하여 빚어지는데, 고유한 비법으로 자가 제조한 누룩은 계룡 백일주만의 독특한 향취를 내게 하고 있다.

마실 때 부드럽고 진하며 입안에서 감칠 맛이 나고, 많이 마셔도 뒤끝이 깨끗하다. 피를 맑게 하고 간과 눈을 보호하며 거담·갈증해소 등의 다양한 약리작용과 피부를 아름답게 하는 미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냉장보관하여 차게(4℃-14℃) 마시면 더욱 뛰어난 향취와 진한 맛을 느낄 수 있다.

3) 아산 연엽주

연엽주는 예안이씨 가전 비법주로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전통건조물 보전지구 제2호) 이득선씨 덕에서 생산되는데 그 가치가 인정되어 1990년 12월 31일 충청남도로부터 무형문화재 11호로 지정되었다. 이 술은 이름 만큼이나 그 제조방법도 특이하다. 먼저 몸을 담고 의복을 단정히 한 뒤 길일을 택해 방위를 가려 술을 담그는데, 한번 위치를 정하면 위치를 바꿀수 없다고 하며, 술맛을 버리지 않기 위해 술을 담그는 안방에는 타인은 출입할 수 없으며 말도 할 수 없다고 한다.

먼저 쌀을 한말 깨끗이 씻어 술밥을 찐 후 밤이슬을 맞힌 뒤 다음날 7홉을 섞어 버무린다. 향아리는 불을 지피 습기를 제거한 뒤 위치를 정하여 향아리를 놓고 밑에다 술잎과 연잎을 가볍게 깔고 버무린

재료를 연근과 섞으며 끓여서 차갑게 식힌 물 2병으로 밑술과 윗술을 사입한 후 덮개를 덮어 10-15일간 숙성시킨다. 기온과 보관방법에 따라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간에 두어번 숙성과정을 살펴야 한다.

완전히 숙성된 후 용수를 받아 술을 뜨면 발그레하고 누런 진액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연엽주이다. 연엽주는 연꽃잎, 연뿌리, 솔잎(또는 싼곡이라는 약재를 넣기도 함) 등 약재를 넣어 만들므로 그 빛깔과 향기가 일품이다. 또한 과음을 해도 뒤끝이 깨끗하고 머리를 맑게 하며 피를 깨끗이 하여 남성에게는 양기를, 여성에게는 산후 하혈방지 등 약효도 탁월하다고 한다.

알콜도수는 10-14% 정도로 품격있는 술이 점잖은 사람에게 제대로 평가받기를 원하는 이득선씨의 경영방침에 따라 대량생산은 하지 않고 소량이 주문 생산되어 백화점 또는 우편판매로 팔리고 있다.

4) 당진 두견주

두견주가 처음 주조된 연대는 뚜렷하지는 않으나 1천여년전 고려 태조의 개국공신인 목지겸의 전설에서 처음 나타나고 있다<sup>10)</sup>. 두견주의 기능 보유자 박승

규씨는 3대째 양조업을 이어오면서 두견주 제조비방을 전수하였으며 1981년까지 양조업에 종사하였다.

두견주는 양조 판매하였으나 정부의 양곡 정책 일환으로 쌀술 제도가 금지조치 되었으므로 유명했던 면천 두견주의 맥이 잘리고 말았다. 다행히도 1982년부터 정부의 사라져가는 전통 민속주 개발계획에 의해 면천 두견주가 1986년 11월 1일자로 중요 무형문화재 '제86-나' 호로 지정받고 박승규씨는 제조 기능 보유자가 되었으며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라. 한산 모시

먼저 농림수산부의 농어촌특산단지 조성사업에 의하여 선정된 품목을 기준으로 본 지역별 섬유직물산업 현황은 (표 14)와 같다. 현재 지역특화산업으로서 섬유직물산업에는 1995년 현재 8개도에서 8개품목 48단지 1,079농가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남지역의 섬유직물산업으로는 한산모시가 대표적이며 23단지 499농가가 참여하고 있다.

모시의 원료인 다년생 모시풀은 신라때에 약초를 캐던 한 노인에게 의해서 진지산에서 처음 발견되어

표 14. 전국 섬유직물 산업 현황

(단위: 개, 호)

지 역	제 품	참여형태	운영단지	참여농가수
광주광역시	마포	취업	1	7
강원도 삼척	삼베	공동생산	2	156
충북 충주	연사	출자취업	2	23
충남 서천	한산모시	자가	23	499
충남 홍성	삼베	취업	1	12
전북 무주	삼베	취업	1	13
전북 완주, 고창, 순창	자수	임가공	3	45
전남 보성	삼베	임가공	1	13
전남 보성	마사	임가공	1	10
전남 보성, 화순, 장흥	마포	취업	9	69
경북 안동, 봉화	안동포	공동생산	2	153
경북 상주	명주수의	임가공	1	18
경남 진주	삼베	임가공	1	61
합 계	8개 품목		48	1,079

자료: 농림수산부 농어촌정비과, 농어촌특산단지 운영현황, 1995

그 다년생 식물을 널리 재배하고 포시풀에서 옷감의 원료를 만드는 방법을 발견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처음 옷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고 한다.

모시짜기는 태모시-모시짜기-삼기-날기-매기-짜기의 단계를 거치는데, 태모시는 모시풀을 거둬 잎사귀를 걷어내고 바깥쪽을 벗겨내 속껍질을 물에 담갔다 말려 만드는 모시의 원료이다. 모시 한필(폭 31cm, 길이 24m)을 짜는데 보통 3~4근이 필요한데 한산 세모시는 2~3근이면 돼 그만큼 가볍다. 다음으로 태모시를 이로 가늘게 쪼개(짜기) 손바닥으로 비벼 연결하면 모시긋이 된다. 태모시를 이로 얼마나 얇게 쪼개느냐에 따라 막저(하급), 중저(중급), 세저(상급)로 제품의 운명이 갈린다. 날기는 베틀에 거는 날실 길이와 올수를 맞추는 작업이며 매기는 콩가루와 소금을 물에 풀어 만든 콩풀을 여러개 날실에 묻히고 왕겨불로 말리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날실과 씨실을 엮어 모시를 짠다.

한산모시는 '한산세모시' 또는 '한산구생저'라고 부른다. 모시는 이조때 가장 잘 팔리던 옷감으로서 서천, 한산, 임천, 부여에서 많이 생산되었으나 한산에서 생산되는 모시만이 유명해서 이곳엔 장날이면 붐비는 장터였고 좋은 모시는 모두 한산모시라고 부를만큼 유명하게 되었다. 한산모시 새벽시장의 최대성수기는 여름을 앞둔 4~6월이며, 한산의 문성옥과 나상덕은 한산모시의 인간문화재로서 보호를 받고 있다. 청초하고 깨끗함의 상징이며 옛날에는 규수의 속옷으로 가장 고상한 옷감이었기도 한 한산모시는 우리나라 선비의 절의를 잘 나타내는 옷감이기도 하였다<sup>11)</sup>.

한산모시 생산 및 지원현황을 보면 총 23개단지 493가구가 생산에 참여하여 2,154백만원의 소득을 올

리고 있는데, 정부지원 사업보다 비지원사업의 규모가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

#### Ⅳ. 지역특화산업 육성 방안

##### 1. 육성주체의 지방화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침과 관리보다는 지역의 특산물 개발이라는 입장에서 시·군 수준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12)</sup>.

현재 지역특산물은 내무부에서, 민속공예품·전통 가공식품·섬유직물산업은 농림수산부에서 육성지침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일종의 역할분담을 하여 균형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즉, 시·군이 사업대상 업체의 사업성 검토와 선정, 종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되,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홍보, 판매, 기술 및 제품개발에 관해서는 도와 중앙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충청남도에서는 농어촌발전 10대 개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역특화산업과 관련된 종합적 시책을 보면 (표 16)과 같다.

##### 2. 지원규모 차등기준의 합리화

정부지원규모를 획일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해당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생산 및 취업자수나 부가가치)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 출자자수 및 출자금액, 집단화 여부 등에 따라 2~5억원까지 차등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지원규

표 15. 한산모시 생산 및 지원현황(1996)

(단위: 개, 호, 백만원)

정부지원여부	운영단지	참여자구	판 매	소 득	용 자
지 원	5	97	1,399	497	50
비지원	18	396	6,138	1,657	-
합 계	23	493	7,537	2,154	50

자료: 농림수산부 농어촌정비과, 농어촌특산단지 운영현황, 1995

모를 차등화하는 기준이 질보다 양적 기준에 치우쳐 있어 경쟁력 차원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지원 대상품목의 경쟁력 확보 여부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특성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경쟁력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지원조건을 완화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경쟁력은 적으나 현상유지가 가능한 품목은 현행 지원수준을 유지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경쟁력이 없어 향후 사업전망이 희박한 품목은 추가지원을 중단하고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정비토록 하는 것이 전체적인 지역특화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

### 3. 제품개발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제품의 품질 및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지원 내용도 생산기술 및 경영지원 등에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역특화산업은 부업단지 운영개념의 재정지원에 주력하고 있을 뿐이며, 규모가 영세한 대부분의 사업자는 자력으로 신제품 개발, 디자인·포장 개선 등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충남의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제품의 디자인 연구개발에 적극적인 단지가 2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학 및 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을 활용한 연계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즉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 및 대학 등에 디자인 및 포장개선 용역을 의뢰함으로써, 지역특화산업은 경쟁력을 얻고 대학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협동관

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산단지연합회 등을 통한 기술 및 경영지도를 통하여 품질향상을 꾀하며, 나아가서 부업단지에서 전업단지로 탈바꿈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 4. 금융지원 개선

농림수산부 지침상 시설 및 운영자금 용자시 농협 여신관리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되 가급적 신용대출을 원칙으로 하고 담보물의 시가기준을 현실화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원대상 사업자의 용자신청시 과다한 담보제공 요구로 용자에 어려움이 큰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충남지역 특화산업에 대한 용자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은행대출시 신용대출 비중이 10% 미만이라고 응답한 단지가 57.5%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특화산업 영위 단지에 대한 신용평가 방법을 개발하여 경쟁력있는 단지에 대해서는 가급적 신용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5. 제품의 차별화

충남지역 특화산업 실태조사 결과 생산제품에 대해 KS마크나 특허권 등 공인규격표시 허가를 받은 단지는 26.7%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품질관리기준을 설정하고 품질보증 고유마크를 제정하여 유사제품과 차별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각 시도의 중요도시에 전시판매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지역특화산업이 아닌 생필품 위주로 판매되고 있으므로 전시판매장 운영방식도

표 16. 충청남도 농어촌발전 과제(특화산업 관련)

시 책	주 요 실 천 사 업
농어촌 지역문화 창달	시·군 주산작목 축제 활성화, 전통민속마을 정화사업
유통판매 지원사업	금산인삼종합전시장 건립, 지역명산품 홍보전시관 운영
생산기반시설 현대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업
지역 기술농업전략 추진	지역특화 기술개발 시범사업, 인삼연구소 설치, 지역농업개발센터 육성
전략품목 수출시장개척	농축수산물 수출 전략품목 중점 육성

자료: 충청남도, 농어촌활력화 10대 시책, 1996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즉 당초 설립목적에 부합되도록 특산단지 제품 및 지역특산물 위주로 판매되어야만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제품의 유통에 있어서도 차별화된 유통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즉 시장에서 명성과 지명도를 얻고 있는 고가품의 경우 유사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새로이 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에 판매과정에서 시장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문판매망의 확대가 필요하다.

인삼의 경우를 예로 들면,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홍삼의 경우 홍삼포에서 생산된 수삼의 전량 구매와 6년후 수매하한가의 예시 및 구매 등급수를 줄이고 등급간 가격차를 확대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수삼 및 백삼은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구매비축제도를 도입하고, 공사로부터 차입한 인삼사업진흥기금을 조합으로 이관시켜 중앙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조합이 산지 수삼 도매시장을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대도시에 직매장시설을 확충하고, 생산자와 대량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

## V. 결론 및 제언

지역특화산업은 노동력, 자본, 기술, 원자재 등 생산요소의 공급체계가 산지로서의 지역성에 기초하면서 생산된 부가가치와 자본 등이 역내에서 순환·축적되는 산업으로서, 지역내의 주민들의 결정과 지역내에 축적된 생산요소들에 의한 내발적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 및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지역특화산업은 타국가의 기업제품에 대하여 고유의 경쟁력을 보유하면서, WTO 보조금 분류상 허용보조금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문이므로 농어촌경제활성화 지원관련 보조금 및 기술개발 관련 보조금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외에도 지역특화산업은 지역 특유의 특산품을 만들어냄으로써 그 지역 고유의 생활문화를 유지하고 전통문화를 후손들에게 계승시키는 역할을 하며, 지역의 매력을 증대시켜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역특화산업은 겸업성, 낙후지역성,

영세성, 계절성, 노동집약성 등 많은 제약조건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충청남도는 농지의 2/3가 평야지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1/3은 준산간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농업을 위한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최근 산업화에 따라 농업의 비중이 상당히 감소하였지만, 아직도 농업이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 높은 편이다. 그러나 농외소득의존도에 있어서 충남지역은 전국 평균에 크게 못미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농외소득을 높이고 지역의 농업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대표적 지역특산물로서 금산 인삼과 청양의 구기자, 전통가공식품산업으로서 민속주, 섬유직물산업으로서 한산 모시를 중심으로 지역특화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품목별로 노력여하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본다. 특히 청양 구기자와 한산 모시는 전국 시장점유율 측면에서 매우 독보적이므로 그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첫째, 중앙정부의 확일적 지침과 관리보다는 지역의 특산물 개발이라는 입장에서 시·군 수준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이른바 육성주체의 지방화가 요망된다. 둘째, 정부지원규모를 확일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해당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제품의 품질 및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지원 내용도 생산기술 및 경영지원 등에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을 활용한 연계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지역특화산업 영위 단지에 대한 신용평가 방법을 개발하여 경쟁력있는 단지에 대해서는 가급적 신용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방법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특화산업 생산제품에 대해 품질관리기준을 설정하고 품질보증 고유마크를 제정하여 유사제품과 차별화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하며, 제품의 유통에 있어서도 차별화된 유통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인용문헌**

-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UR 타결과 농정의 대응방향, 1994 참조.
- 2) 충청남도에서 추진중인 「농어촌발전 10대 개발과제」중 하나인 농어촌 지역문화 창달사업에는 시·군 주산작목 축제 활성화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지역특화산업과 지역문화의 관계가 밀접함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충남발전연구원, 「21세기 충남장기발전비전」, 1997. 9, p.291. 참조.
- 3) 한국은행 대전지점(1996) 참조.
- 4) 서기원, UR이후 한국농업의 대응방향, 국제농업개발학회지, 1994 참조.
- 5) 인삼의 학명은 Panax Ginseng C.A. Meyer 로서 그리스어의 판(pan:모든)과 엑소스(axos:의약)가 혼합된 복합어로 만병통치약이란 뜻이며 진생(Ginseng)은 인삼의 중국음을 영어로 표기한 것이다. 북아메리카 인삼(Panax Quinquefolium)과 일본의 竹節人蔘(Panax Japonicus) 등은 우리나라 인삼과 식물학적으로 종류가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행 대전지점(1996) 참조.
- 6) 서종혁 외, 인삼사업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2 참조.
- 7) 1,800여년전 후한시대에 저술된 책으로서 약을 상약, 중약, 하약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중 무독한 것으로서 인삼과 구기 등을 들고 있다.
- 8) 이시진의 「본초강목」에는 “구기는 독성이 없으며 해열하고 체내에 있는 邪氣, 가슴의 염증, 갈증을 수반하는 당뇨병이나 신경이 마비되는 질병에 좋다. 구기자는 정기를 보하고 폐나 신장의 기능을 촉진하여 시력이 좋아져 꺼져가는 등불에 기름을 부은 것같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 9) 농어가 5호 이상이 출자, 취업, 원료제공 형태 등으로 참여하고 운영은 공동운영 또는 단독운영 모두 가능하다.
- 10) 이 전설에 따르면 목지검이 병으로 앓고 있는데 백약이 무효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15세 된

그의 딸 영랑이가 아미산에 올라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중 마지막날 꿈에 부친이 병을 떨치려면 아미산에 만개된 두견화의 꽃잎과 참살로 술을 빚되 반드시 안샘(현재 면천초등학교 뒤 우물)의 물로 빚어 백일이 지난 다음 이를 마시고 뜰에 두그루의 은행나무를 심어 정성을 드러야만 나올 수 있다는 계시를 받고 이를 실천에 옮겨 부친의 병을 고쳤다고 한다.

- 11) 고려 인종 원년 고려에 왔던 송나라 사신 서궁은 한산모시를 옷감으로서 빠릿하여 위엄이 있는 옷감이며 품위있어 보이는 옷감이라고 칭찬한 바 있다고 한다.
- 12) 최병학, 충청남도의 개발정책 구도와 지역발전 전략, 「충은경제」 1997년 제3호, 참조.

**참고문헌**

1. 김병률 외, 1997. 12, 원예특작부문의 중장기 정책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김성훈 외, 1995, WTO와 한국농업, 비봉출판사.
3. 김홍진, 1996, 충남 서북부 지역경제의 현황과 과제, 한국동서경제연구.
4. \_\_\_\_\_, 1998, 동북아경제권에 있어서 충남의 역할, 한몽경제학회 제4차 국제학술회의.
5. 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 각년호.
6. 농촌진흥청, 1995, 농업과학기술의 세계화를 위한 중장기 연구개발계획.
7. 농협중앙회, 1994, UR 이후의 농업·농촌대책(안).
8. \_\_\_\_\_, 1995, 1995년도 농민실익 100대 사업.
9. 서기원, 1992, 국민경제발전과 농가경제, 협동연구원.
10. \_\_\_\_\_, 1992, 농가경제발전과 농업단체, 협동연구원.
11. \_\_\_\_\_, 1993, 종합협동조합과 품목별 생산 조합의 발전 방향, 한국협동조합학회.
12. \_\_\_\_\_, 1994, UR이후 한국농업의 대응방향, 국제농업개발학회지.
13. \_\_\_\_\_, 1995, 한국경제론, 유희출판사.

14. 서기원 · 김홍진, 1996, 아산시 농업발전 및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방안, 한국동서경제연구.
15. 서중혁 외, 1992, 인삼사업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6. 임의순, 1997, 지방자치시대의 지역농업개발 활성화 전략, 충청남도 · 농협대전충남지역본부, 「지방자치시대 지역농업개발 심포지움」.
17. 최병학, 1997, 충청남도의 개발정책 구도와 지역발전 전략, 「충은경제」 제3호.
18. 충남발전연구원, 1997, 9, 「21세기 충남장기발전 비전」.
19. 충청남도, 충남통계연감, 각년호.
20. \_\_\_\_\_, 1995, 살기 좋은 충남 2000년을 향한 지역경제발전 6개년계획.
21. \_\_\_\_\_, 1996, 농어촌활력화 10대 시책.
22. 충청남도 농촌진흥원, 1989, 충남의 농업개황.
23. 한국은행 대전지점, 1996, 특화산업 현황 및 육성 방안.
24. \_\_\_\_\_, 1997, 대전 · 충남 지역경제연보.
25. \_\_\_\_\_, 1997, 충남지역의 경제 분석.
2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 충남지역 농업사례-지역농업구조의 특성과 발전전략.
27. \_\_\_\_\_, 1994, UR 타결과 농정의 대응방향.